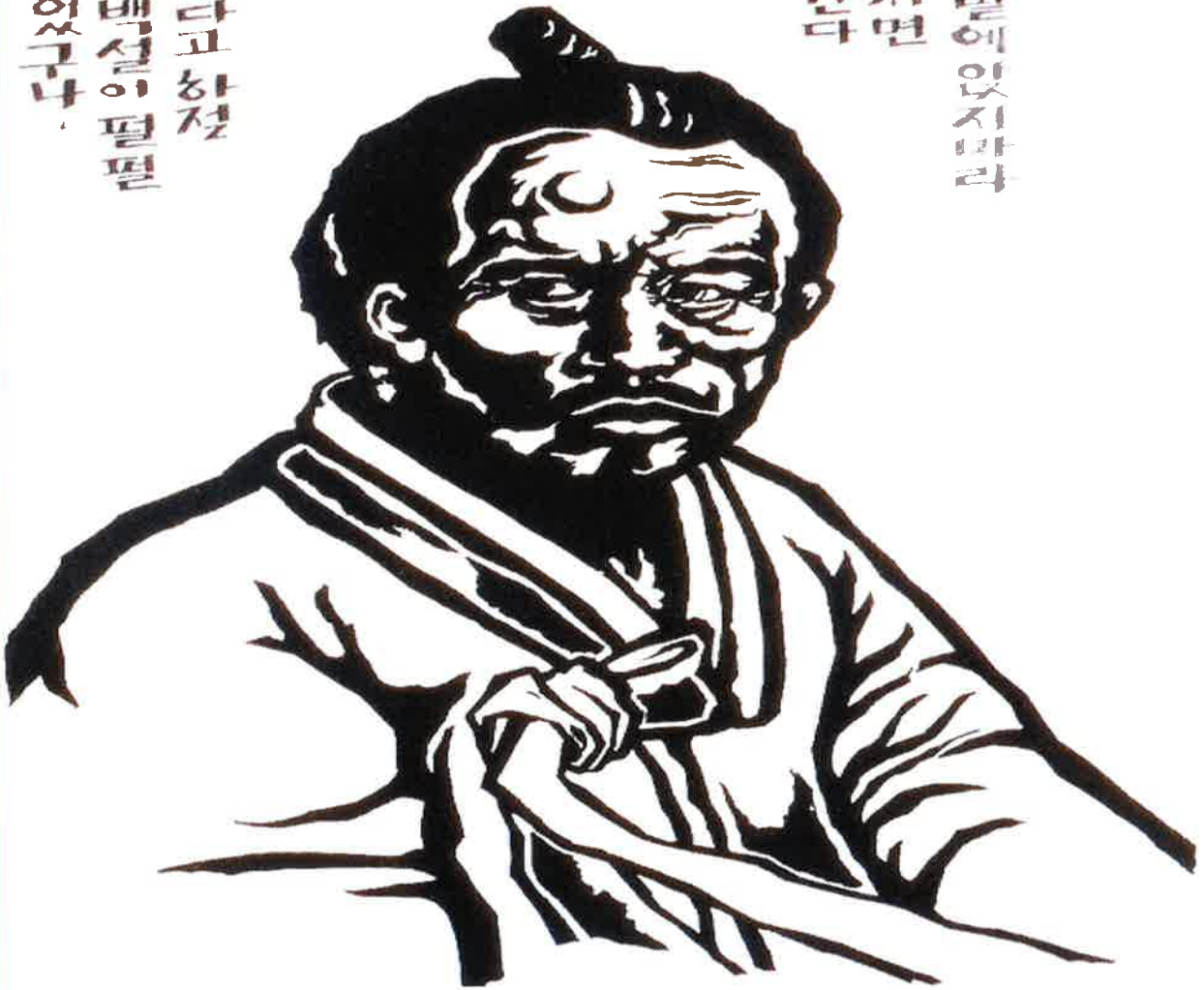


전봉준장군동상건립모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누두밭에 앉지 마라
누두꽃이 떨어지면
성포장수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전주고부
죽두
새야
어서 바삐
날아가라
대일술잎 푸르다 고 하절
이제 안아라 디백설이 떨어
힘동신한이 되어 간다



- ☞ 성금모금기간 : 2020. 9. 16. ~ 2021. 9.15.
- ☞ 성금모금계좌 : 농협) 302-5560-1894-61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민주주의의 시작! 동학농민혁명 중심 고창!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최초로 민중의 자각에 의한 전국적 농민항쟁으로서 근대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차 농민봉기는 자유 민권을 위한 반봉건 항쟁이었으며,

2차 농민봉기는 일본침략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민족 자존의 반외세 항쟁이었습니다.

지배·예속관계에 기초한 봉건적 사회·경제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평등·자주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한 동학농민혁명은

결국 관군과 침략세력인 일본,

그리고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반격에 의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지만,

그 맥은 항일 의병항쟁, 3.1 운동, 상해임시정부 및 광복군활동 등의 민족운동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광화문 촛불시민혁명 등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혁명의 중심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열고자 한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장이며

근대 사회의 큰 장을 연 전봉준 장군과 수 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다시 밝힌다.

민주주의 시작!
동학농민혁명의 중심 고창!
전봉준 장군이 탄생한 고창에
녹두장군 전봉준을 기리는
마음으로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오니
전 국민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일동 -

☞ 성금모금기간 : 2020. 9. 16. ~ 2021. 9.15.

☞ 성금모금계좌 : 농협) 302-5560-1894-61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고창군 공음면 왕제산로 502

063-564-1894

이메일 : kbg5603@naver.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orms788>

밴 드 : <https://band.us/band/80847896>





이름 : 전봉준
 성별 : 남
 본관 : 천안(天安)
 좌 : 명좌(明佐), 호 : 해몽(海夢)
 출생 ~ 사망 : 1855.12. 3.(음)~1895. 3.30.(음)
 출신지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 당촌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선봉장 전봉준장군은 1855년 12월 3일(양력 1856.1.10) 아버지 전창혁과 어머니 언양김씨 사이에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고창현 산내면 당촌) 63번지에서 태어났다. 몸이 왜소하여 녹두라 불렸는데 이 때문에 뒷날 녹두장군이란 별명이 생겼다. 아버지가 민란의 주모자로 처형된 후부터 사회개혁에 대한 뜻을 품게 되었다. 그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민족을 구하려 민중을 이끌고 동학농민혁명을 영도한 민족의 선각자로 불굴의 의지력과 탁월한 영도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전봉준은 1월 고부 봉기 후 안핵사 이용태가 역졸을 거느리고 내려와 동학농민군을 탄압하였지만 이때 전봉준은 좌절하지 않고 무장의 대접주 손화중을 움직여 3월 고창군 무장에서 포고문을 반포하고 봉기하여 군현 경계를 벗어나 동학농민혁명으로 발전시켜 전주성을 점령하고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 해 6월 21일 (양 7월 23일) 일본군이 궁성에 침입하여 고종을 연금하는 사태에 이르자 전봉준은 삼례에서 9월 봉기를 일으켜 서울로 진격하다가 일본의 신무기와 관군에 의해 10월23일 공주에서 혈전 끝에 참패하고 후퇴하며 동학농민군을 해산했다. 동학농민혁명에는 삼남지방 각지에서 봉기하였으나 전봉준처럼 호남의 5천대군을 거느리고 일사불란의 전열로 일본군에 최후까지 혈전을 벌인 인물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후 전봉준은 수행 몇 명과 동 29일 입암산성으로 들어 갔다. 때마침 일본군 三尾(모리오)부대와 이규태의 관군이 추격해 온다는 정보가 있어 30일 다시 백양사로 이동했다.

김경천은 전봉준을 맞이해 놓고 전주감영 퇴교(지금의 현역장교)로 이웃에 살고 있는 한신현에 밀고 했다. 전봉준은 순창을 거쳐 담양의 일본군에 인계되어 나주, 전주를 경유 1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되었는데 동학군들을 경계하여 일본영사관 감방에 수감되었다. 전봉준은 5차에 걸쳐 일본 영사의 심문을 받고 1895년 3월 30일 손화중, 최경선 등과 함께 최후를 마치니 나이 41세였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동학농민혁명의 횃불을 다시 밝힌다.

작지만 의미있는 기부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